

# 장애모 영화 <영웅>의 인문학적 분석

이 인 호\*

## 차례

### I. 들어가면서

### II. 본론

1. 장애모 감독은 왜 <영웅>을 제작 했는가?
2. <영웅>의 줄거리
3. <영웅>의 스토리와 실제 역사
4. 자객들의 밀모에 관하여
5. 서예와 검술을 관통하는 장자(莊子)의 사상
6. '천하통일'은 생존의 문제

### III. 결론

## I. 들어가면서

대중문화를 한 마디로 정의한다면 어떻게 될까? 대다수 민중이 즐기는 문화라 잠정적으로 정의한다면, 영화 감상은 매우 대중적인 문화의 하나가 될 것이다. 초고속 통신망이 보급되고 PC 성능이 엄청나게 향상된 현재, 굳이 영화관을 찾지 않더라도 디빅(DivX) 영화 파일을 통하여 홈시어터(Home Theatre)에 필적한만한 화질과 음질로 얼마든지 책상에 앉아 원하는 영화를

\* 한양대

감상할 수 있다.<sup>1)</sup> 특히 무선 정보통신 기술이 약진을 거듭하고 있으므로 가까운 장래에 야외나 이동 중에도 핸드폰의 화면으로 영화를 감상할 날이 도래할 것이다. 영화라는 대중문화 장르는 조만간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벗어나 바야흐로 가장 대중적인 오락의 하나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것이다.

언제 어디서나 마음만 먹으면 접근할 수 있게 될 영화, 영화를 감상하거나 분석하는 방법은 다양하다. 영화의 형식이나 내용 뿐아니라 영화 촬영 및 편집 기술로부터 그 발전 역사까지 다루기도 하고, 영화와 관련된 시장과 마케팅을 비롯하여 정치 문화적 함의까지도 조명할 수 있다. 그러므로 예술의 관점이나 미학의 각도에서 영화를 분석하는 것은 이미 고전적인 방법이고, 근차에는 법학이나 철학의 관점에서 영화를 분석한 글도 심심찮게 볼 수 있다.<sup>2)</sup> 영화 자체가 멀티미디어 예술이고, 영화 제작의 준비 단계로부터 시장 배급까지 그 일련의 과정과 관련된 인위 기술 자본 및 정치사회적 시스템이 결코 단순하지 않기 때문이다.

2002년 겨울, 장예모 감독의 블록버스터 <영웅>(Hero)이 출품되면서 국내 외적으로 의론이 분분했다. <영웅>이 나오기 불과 2년 전 이안(李安) 감독의 <와호장룡>이 대성공을 거두자<sup>3)</sup> 장예모 감독이 나도 질세라 따라 만든 삼류 무협영화라는 비아냥으로부터 시작하여 중국 문화의 다양하고도 섬세한 묘사라는 극찬까지 냉온탕을 왕래했다. 필자는 주로 중국문화의 관점에서 외국인 이 이해하기 쉬운 <영웅>의 몇 장면을 집중적으로 분석하여 중국의 역사 및

- 
- 1) 맥스모리스(MaxMorice)라는 닉네임을 가진 프로그래머가 마이크로소프트가 ASF 파일 형식을 위해서 만든 MPEG-4 코덱에 걸려 있는 제한을 바이너리를 조작, 변경 가능하게 하고 음성(사운드트랙)은 MP3로 대체한 코덱을 'DivX' 라는 이름으로 발표했다. 이 DivX는 발표되자마자 순식간에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로 퍼져나가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DeCSS를 이용해 DVD를 복제한 후 DivX라는 동영상 형식으로 만든 영화는 거의 DVD와 비슷한 화질을 보여주면서도 CD 한두 장 분량에 충분히 들어가므로 인터넷이나 PC통신의 영화 동호회를 중심으로 엄청난 속도로 퍼져나갈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 2) 동아일보에 연재된 바 있는 칼럼 <안경환 교수의 법과 영화 사이>는 법학의 관점에서 영화를 분석한 내용이다. 김성환 교수의 단행본 <나는 본다 철학을>(동녘)은 철학의 관점에서 영화를 분석한 것이다.
  - 3) 시사주간지 <타임>은 <와호장룡>을 2000년도 최고의 영화로 선정하였으며, 2001년 골든글로브상의 감독상, 아카데미상에서 외국어영화상·촬영상(피터 파우)·음악상(탄둔)·미술상을 받았다.

사상 그리고 예술이 대중문화의 꽃이라 할 영화에 어떻게 투영 혹은 차용되었는지 살펴보고 아울러 정치사회적 함의까지도 추론해보기로 한다.

## II. 본론

### 1. 장예모 감독은 왜 <영웅>을 제작했는가?

외부의 추측과는 달리 장예모 감독은 <와호장룡>이 제작되기 전부터 <영웅>의 시나리오를 구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점은 <영웅>의 시나리오를 작성한 소설가 이풍(李馮)의 인터뷰 기사를 보면 알 수 있다.<sup>4)</sup> 게다가 장예모 본인은 TIMES를 비롯한 각종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무협 영화는 어린 시절부터 만들고 싶었다고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sup>5)</sup> 따라서 표면적인 이유는 장예모가 만들고 싶어서 만들었을 뿐이다. 감독이 영화를 만들고 싶어서 만들었다는데 굳이 내막을 파헤칠 필요가 있을까. 그러나 지금까지 장예모 감독이 만든 영화의 면모나 영향 그리고 그로 인해 발생한 이런저런 사태의 추이를 살펴계 되면 그렇게 간단히 넘어갈 문제는 아닌 듯 하다.

장예모 감독은 현재 중국의 제5세대 감독으로 명성을 날리고 있지만 문화대혁명 당시 출신 성분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숙청되어 섬서성 남부의 촌장에서 3년 가랑 농사를 지었으며 이어서 함양 방직공장에서 7년 동안 원료 포대를 옮기는 막노동을 하기도 하였다. 그 후 대학에 진학하려 했으나 나이 제한에 걸려 북경영화학원에 입학이 거부된 적도 있었다. 천신만고 끝에 입학에 성공하여 1982년 북경영화학원 촬영학과를 졸업했다. 졸업 후 장예모는 영화 제작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는데, 1984년의 <한 사람 여덟 사람>(一個和八個)과 1985년의 <황토지>(黃土地)에서는 촬영감독으로, 1986년의 <고정>(古井)에서는 남자주인공으로, 1987년부터는 <붉은 수수밭>(紅高粱), <홍등>(大紅燈籠), <귀주이야기>(秋菊打官司) 등에서는 감독으로 활약한 바 있다. <황토지>는 1984년 중국 국내 최고 권위의 금계장(金鷄獎)을 수상했고 그와 동시에 1985

4) [http://news.xinhuanet.com/newscenter/2002-12/15/content\\_659887.htm](http://news.xinhuanet.com/newscenter/2002-12/15/content_659887.htm)

5) <http://ent.tom.com/Archive/1002/1011/2002/8/11-44013.html>

년도 로카르노 영화제에서 은표범상을 수상하여 중국 영화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을 집중시켰다. 한편 〈붉은 수수밭〉은 1988년 베를린 국제영화제에서 대상을 수상하여 중국 영화를 전세계에 알리는 기폭제가 되기도 했다. 그러나 중국 정부의 반응은 냉담했다. 어느 정도 냉담했을까? 전세계 영화제에서 〈황토지〉의 출품을 요청했지만 중국 정부는 모두 거절해 버린 것이다. 중국 영화계의 원로 중의 원로였던 하연(夏衍)은 아예 공개적으로 “영화는 대중예술이므로 제작자들은 절대 다수의 관중들에게 봉사해야 한다……”는 취지로 비판한 바 있으며, 그 외 대다수 좌익 원로들도 “생활과 역사로부터 동떨어진 황당한 작품”이라며 비판에 가세했다. 그 후 중국 공산당 건국 35주년 기념작으로 제작된 〈대열병〉(大閱兵)은 북경영화학원 동기동창 진개가(陳凱歌)와 합작했는데 영화 필름을 편집하는 과정에서 당국에게 압수되기도 했다.<sup>6)</sup>

장예모를 비롯한 진개, 전장장(田壯壯), 장군쇠(張軍釗), 오자우(吳子牛) 등 제5세대 감독들이 국제적으로 주목을 받으면서도 왜 중국 국내에서는 당국으로부터 푸대접을 받거나 혹은 억압을 받았을까? 시각 효과나 서사 방식은 표현의 문제이므로 일단 차치하고라도 장예모를 비롯한 제5세대 감독 대부분은 중국 정부가 요구하는 명확한 의식형태를 접수하기는커녕 도리어 애매모호하고도 상징적인 수법으로 중국의 현실과 정부를 비판한다고 중국 당국자들은 믿었기 때문이다. 이를 테면, 〈황토지〉는 오지의 엽기적인 풍속을 과장되게 묘사하여 중국 농촌의 현실을 왜곡했다는 것이고, 〈귀주이야기〉는 경직된 관료 제도를 비판했다는 것이며, 〈국두〉(菊豆)나 〈홍등〉은 봉건제도를 비판하는 척 하면서 실은 중국의 현실을 비판했다는 식이다. 특히 1989년 6.4 천안문 사태 이후 표현의 자유가 상당 부분 유보된데다 80년대 초기부터 불어 닥친 개혁개방의 파고가 국영 영화사까지 그 영향을 미치자 영화사 간부들은 상업성을 고려하지 않고 감독들의 예술 이념만을 지지해서는 시장경제 시스템에서 살아남기 힘들어졌다. 이런 분위기에서 제5세대 감독들은 국내에 남아 계속 작품 활동을 하려면 어쩔 수 없이 중국 당국이나 시장경제 시스템과 적절하게 타협하지 않을 수 없었고, 타협을 거부하는 감독들은 유명 영화제에

6) 『風雲際會』에 수록된 焦雄屏의 글 「以藝爲謀」, 41면 참고.

서 수상한 트로피를 들고 외국 투자자들에게 제작 비용을 구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장예모는 어떻게 되었는가? 국내에 남았다. 1987년 화제작 <붉은 수수밭>을 제작했지만 1988년 제작된 <코드네임 쿠거>(중문명:代號美洲豹)는 전형적인 상업영화의 실패작으로 혹평이 이어지자 장예모 본인조차도 자기 작품으로 인정하길 꺼려할 정도였다. 예술성과 상업성을 껴안으면서 당국의 의식형태까지 신경써야 하는 장예모로서는 진퇴양난에 직면한 셈이었다. 그리하여 장예모는 스타일을 바꿔 일상의 잔잔한 이야기로 출구를 찾게 되는데 1999년의 <책상서랍 속의 동화>와 <집으로 가는 길> 그리고 2000년의 <행복한 날들> 등이 그 결과였다. 물론 그 과정에서 1994년 칸느 영화제에서 심사위원 대상을 수상한 <인생>을 제작하기도 했지만 그러나 할리우드 마피아 영화의 흥내를 내려다 실패한 <트라이어트>(Shanghai Triad: 搖啊搖, 搖到外婆橋)도 바로 그 이듬해 제작하였다. 그렇다면 위와 같이 낙차가 큰 작품들이 교대로 출품되는 현상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예술성과 상업성 사이에서 방황한다는 증거이며 그와 동시에 민감한 정치적 테마는 가급적 회피하거나 혹은 아예 변신하여 중국 정부의 지도 이데올로기를 받아들였다는 뜻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2002년 겨울 <영웅>이 세상에 모습을 드러냈다.<sup>7)</sup> 그런데 개봉관에 배급되기도 전에 북경의 '인민대회당' (우리의 국회의사당에 해당)에서 시사회를 개최하는 '특권'을 누렸다. 중국 정부가 그동안 꺾끄럽게 여겼던 제5세대 감독의 대표주자 장예모 감독, 미국의 미라맥스가 투자한 할리우드 최대 동양 무협 프로젝트라서 당국이 그렇게까지 파격적인 친절을 베풀었

7) 장예모 감독의 무협영화 <영웅>은 중국 영화사상 최고의 관객동원 기록을 수립하였다. 2002년 12월 20일 중국에서 개봉한 <영웅>은 개봉 당일 200개 스크린에서 약 1200만 인민폐 (한화 약 18억원, USD 145만불)의 기록을 세웠다. 특히 당시 북경은 한파가 급습했던 불리한 조건이었으나 관객들은 줄을 서서 기다리며 연일 매진사례를 보였다. 심지어 관객들의 요구로 극장측은 새벽 6시부터 익일 새벽 2시까지 상영횟수를 늘이기도 하였다. <영웅>은 장예모 감독의 첫 무협작이자 장만옥, 이연걸, 양조위, 장자이 등 화려한 캐스팅으로 전세계 화제가 되었던 작품이다. 특히 미라맥스가 투자한 할리우드 최대 동양 무협 프로젝트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또한 <영웅>은 제 60회 골든 글로브 영화제에서 외국어 영화상 후보작에 올랐다. 2년 여의 기획과 6개월여의 촬영기간, 3500만 달러가 넘는 제작비와 6천 5백명의 최대 촬영인원, 광활한 고비 사막과 천혜의 명승지 구채구에서 펼쳐지는 스펙터클한 영상으로 화제를 집중시켰던 <영웅>은 한국에서 이듬해 1월 24일 중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번째로 개봉된 바 있다.

을까? 굳이 영화를 홍보하지 않아도 저절로 홍보가 되게끔 인민대회당에서 시사회까지 열어준 그 저의는 무엇일까? 그렇다면 <영웅> 속에는 중국 정부가 원하는 그 어떤 정치적 메시지라도 담겨있기 때문일까? 이제 <영웅>의 줄거리를 소개한 후에 주로 중국문화의 관점에서 <영웅>의 몇 장면을 집중적으로 분석함과 동시에 정치사회적 함의도 추론하기로 한다. 또한 같은 연장선에서 근자에 한국을 격분시킨 고구려사 왜곡 문제도 약간 언급하도록 한다.

## 2. <영웅>의 줄거리

전국시대 말기, 당시 중국은 일곱 제후국이 패권을 겨루고 있었는데 계속되는 전쟁으로 백성들은 고통 속에 시달리고 있었다. 일곱 제후국 중에 진(秦)나라가 가장 막강했으며 진왕 영정(嬴政: 훗날 진시황제)이 즉위한 이후 천하를 통일하고자 공세를 더욱 강화했다. 그러므로 영정은 여섯 제후국에게는 공통의 적이자 최대의 위협이었다. 이에 영정을 암살하려는 작전이 암암리에 전개되었다. 조나라 출신의 자객 장공(長空: 견자단 역), 비설(飛雪: 장만옥 역), 잔검(殘劍: 양조위 역) 등이 주모자였다.

생명의 위협을 느꼈던 영정은 자객을 살해한 자에게는 후한 상을 내리겠다고 공고했고 아울러 자신의 백보 안에는 누구도 접근하지 못하도록 엄명을 내리게 된다. 영정이 전전긍긍하던 차에 자객 3명을 살해한 이름없는 검객 무명(無名: 이연걸 역)이 나타난다. 영정은 기쁜 나머지 무명을 십 보 안으로 불러들여 자신과 대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으며 아울러 어떻게 자객들을 제거했는지 자초지종을 묻게 된다. 이에 무명은 그간의 과정을 설명한다. 우선 장공을 살해하고, 이어서 장공과 비설 그리고 잔검의 삼각 관계를 이용하여 비설이 잔검을 죽이게 한 후에 마지막으로 자신이 비설을 죽였다고 밝혔다. 그러나 영정은 의문을 표시했고 이어서 무명의 설명과는 다른 스토리를 제시하며 무명이 거짓말을 한 의도를 추궁하게 된다. 말하자면 영정을 살해하기 위하여 무명의 주도 하에 3명의 자객이 자원하여 목을 내놓았고 그 덕분에 무명은 십 보 안에 접근하게 되었다는 지적이다. 곧 이어 진영은 무명에게 정체를 캐묻는다. 거짓말이 탄로난 무명은 자신 역시 조나라 출신이며 진나라 군대에 가족이 몰살당했기에 보복하려고 10년 동안 검법을 연마했고 이어서 3명의

조나라 출신 자객들의 희생으로 영정의 십 보 이내까지 접근했다고 고백했다. 영정은 무명의 계략에 말려들어 죽을 목숨임을 인정했으나 무명은 거사 직전 의외로 주저한다. 영정은 그 이유를 물었고 무명은 진영의 추측과는 다른 잔검의 이야기를 보충해준다. 3년 전 잔검이 진나라 궁전에 침투하여 영정을 거의 살해할 수 있었으나 잔검이 스스로 포기했던 비하인드 스토리였다. 왜 포기했느냐는 영정의 질문에 무명은 다음과 같이 잔검의 고백을 소개했다. 즉 잔검은 무명에게 ‘천하’(天下)라는 두 글자를 땅에 써보이며 그 이유를 대신했다는 것이다. 무명의 입에서 잔검이 써보였던 ‘천하’ 두 글자가 흘러나오자 영정은 감회가 새로운 듯 ‘천하’ 두 글자를 중얼거리며 무명을 바라보았다. 무명은 암살 대상자 영정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한다. “일곱 제후국의 계속되는 혼전으로 백성들은 고통을 당하고 있사온대, 오로지 대왕만이 전란을 종식시키고 천하를 통일할 수 있습니다. 잔검은 천하를 위하여 저에게 암살을 포기하도록 종용했습니다. 잔검은 저에게 이렇게 말했지요. 일개인의 고통은 천하만민의 고통과 비교했을 때 고통이라 할 수 없다. 조나라와 진나라의 원한은 천하의 원한과 비교했을 때 원한이라고 할 수 없다.”<sup>8)</sup> 이 말에 영정은 감동 어린 표정으로 이렇게 대꾸한다. “과인을 가장 이해하는 자가 과인이 수배했던 자객일 줄이야. 과인은 외롭게 혼자서 그 많은 비난을 받고 암살도 당했던 만 그러나 아무도 과인의 마음을 알아주는 이가 없었다. 진나라 문무백관들마저도 과인을 그저 폭군으로만 봤으니까. 그런데 예상 밖에 잔검은 과인과 일면식도 없으나 진정으로 과인을 이해했구나. 과인의 마음과 통했다고.”<sup>9)</sup> 여기까지 고백 아닌 고백을 한 영정은 무명에게 비록 십 보 내에 있지만 맨손으로 어떻게 나를 살해하겠냐고 묻는다. 무명은 영정의 칼을 탈취하여 죽이겠다고 한다. 이에 영정은 꺼리낌없이 수중의 칼을 던져주면서 잔검과 같은 협객이 이 세상에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자신은 죽어도 여한이 없다며 무명에게 이

8) 영화의 대사는 이러하다. “七國連年混戰，百姓受苦，唯有大王才能停止戰亂，一統天下。殘劍希望我，爲了天下，放棄刺殺大王。他跟我說，一個人的痛苦，與天下人比，便不再是痛苦，趙國與秦國的仇恨，放到天下，也不再是仇恨。”

9) 영화 대사는 이러하다. “沒想到最瞭解寡人的竟是寡人通緝的刺客！寡人孤獨一人，忍受多少責難，多少詭算，無人能懂寡人之心，就連秦國的滿朝文武，也視寡人爲暴君，想不到殘劍與寡人素昧平生才真正懂得寡人，與寡人心意相通。”

렇게 말한다. “천하를 위하여 이 칼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결정하라”<sup>10)</sup>며 등을 보이고 돌아선다. 무명은 바닥에 박힌 칼을 빼어들자 그 뒤로 진나라 병사들이 활을 겨누며 몰려들었고, 무명이 칼을 세우며 영정에게 돌진하려는 찰나, 영정은 앞에 걸린 파검의 서예 ‘검’ (劍) 자를 뚫어지게 바라보다가 이렇게 고함을 지른다. “과인은 이제 깨달았다. 잔검이 쓴 이 글자는 결코 검법이 아니라 검법의 최고 경지를 써놓은 것이다. 검법의 첫단계는 검객과 검이 일치하는 것으로 검은 곧 검객이고 검객은 곧 검이다. 그러므로 수중에 이파리한 쪽이라도 무기가 될 수 있다. 검법의 다음 단계는 수중에 검을 없애고 마음 속에 검을 간직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맨손이라 할지라도 검의 기운으로써 백보 밖의 적은 살해할 수 있다. 그런데 검법의 최고 경지는 수중에도 검이 없을 뿐더러 마음에도 검이 없다. 그러므로 넓은 마음으로 모든 것을 포용할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살육을 그치는 것이며 평화를 추구하는 것이다.”<sup>11)</sup> 영정의 말이 끝나자마자 무명은 날아가듯 돌진하여 영정의 등을 찌른다. 찌르면서 이렇게 말한다. “대왕, 이 검은 저로서는 반드시 찌러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찌르면 대부분 죽습니다. 그러나 대왕께서는 살아있을 것입니다.”<sup>12)</sup> 칼등으로 찌렸기 때문이다. 무명은 말을 잇는다. “죽어간 사람들을 대왕께서는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최고의 경지를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sup>13)</sup> 그러면서 무명은 칼을 바닥에 던지고 궁실을 걸어나간다. 화면은 바뀌고 무명이 암살을 포기했다는 소식을 듣자 비설은 잔검을 죽이고 자신도 자살해버린다.<sup>14)</sup> 다시

10) 영화 대사는 이러하다. “你就爲天下，決定這一劍吧!”

11) 영화 대사는 이러하다. “寡人悟到了，殘劍的這幅字，根本就不含劍法招式。寫的是劍法的最高境界。劍法，其第一層境界講求人劍合一，劍就是人，人就是劍，手中寸草，也是利器。其第二層境界，講求手中無劍，劍在心中，雖赤手空拳，却能以劍氣殺戮於百步之外。而劍法的最高境界則是手中無劍，心中也無劍，是以大胸懷包容一切，那便是不殺，便是和平。”

12) 영화 대사는 이러하다. “大王，這一劍臣必須刺，刺了這一劍，很多人都會死，而大王會活着。”

13) 영화 대사는 이러하다. “死去的人請大王記住，那最高的境界。”

14) 비설이 잔검을 죽이게 되는 과정은 설명이 필요하다. 비설은 조나라 장군의 딸이었다. 진나라가 조나라를 공격하여 대과하자 비설의 아버지는 전사했고, 아버지의 보검은 비설에게 유물처럼 전달되었다. 비설은 아버지의 원수를 갚겠다고 맹세하게 된다. 그 후 비설은 잔검을 알게 되어 사랑에 빠졌고 두 사람은 서예를 통하여 새로운 검법을 연마하게 된다. 검법을 완성하자 비설과 잔검은 진나라 궁전으로 돌진했고 비설이 어전의 출입구를 방어할 때 잔검은 영정을 처치하려 한다. 그런데 잔검은 결정적인 순간에 영정을 살려주고 만다. 그 이유는 훗날 무명에게 ‘천하’ 두 글자를 땅에 쓰면서 밝혀진다. 잔검의 이런 행동을 이해할



화면이 바뀌고 진나라 병사들이 벌떼처럼 날린 화살에 무명마저 죽는다. 마지막 장면은 황혼녘 만리장성을 배경으로 이런 자막이 뜬다. “진왕은 명령을 내려 무명을 후하게 안장하도록 지시했다. 희생했던 세 명의 친구를 위하여 장공은 무기를 던지고 평민으로 돌아갔다. 기원전 221년, 진왕 영정은 중국을 통일하여 전쟁을 종식시켰고 만리장성을 축조하여 국가와 백성을 보호하면서 중국 역사상 최초의 황제가 되었는데 그가 곧 진시황제이다.”<sup>15)</sup>

### 3. <영웅>의 스토리와 실제 역사

<영웅>의 스토리는 첫 화면의 자막과 마지막 화면의 자막만이 진실이고 그 외는 모두 허구이다. 첫 화면의 자막은 이러하다.

2천 여년 전, 때는 중국의 전국시대였다. 당시 중국은 일곱 제후국으로 나뉘어져 있었는데 진나라 조나라 한나라 위나라 연나라 제나라 초나라였다. 일곱 나라는 맹주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하여 정벌을 계속했고 백성들은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었다. 일곱 나라 중에 진나라가 가장 강했다. 진왕 영정은 나머지 여섯 제후국을 합병하여 천하를 통일하려는 야심이 있었으므로 여섯 제후국들에게는 최대의 적이였다. 그리하여 예로부터 지금까지 진영의 암살과 관련된 많은 이야기가 전해져 오는데……<sup>16)</sup>

마지막 자막은 이러하다.

---

수 없었던 비설은 무명이 영정을 살해하겠다고 나서자 흔쾌히 동의하며 고육책의 일종으로 자신이 희생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잔검이 무명마저 설득하여 무명이 영정을 살려 주자 비설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잔검에게 칼을 들이댔던 것이다. 방어할 생각이 없던 잔검은 비설의 칼날에 목숨을 잃고, 조국과 아버지와 애인마저 모두 잃었던 비설도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렸던 것이다. 이상 보충 설명은 스토리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보충한 것임.

- 15) 영화 자막은 이러하다. “秦王下令，厚葬無名。爲了紀念死去的三位朋友，長空從此拋武。紀元前221年，秦王統一中國後，結束戰爭，修建長城，護國護民，成爲中國歷史上第一個皇帝，史稱秦始皇。”
- 16) 영화 자막은 이러하다. “兩千多年前，是中國的戰國時代。當時中國分爲七個諸侯國：秦·趙·韓·魏·燕·齊·楚。七國爲爭奪霸主地位，連年征戰，百姓備受煎熬。七國之中，秦最強。秦王嬴政，意欲吞并六國，統一天下，被六國視爲最大敵人。古往今來，中國歷史上，流傳着許多關於刺殺秦王的故事……”

기원전 221년, 진왕 영정은 중국을 통일하여 전쟁을 종식시켰고 만리장성을 축조하여 국가와 백성을 보호하면서 중국 역사상 최초의 황제가 되었는데 그가 곧 진시황제이다.<sup>17)</sup>

역사상 실제로 발생했던 진왕의 암살 사건은 주지하다시피 형가(荊軻) 사건으로, 영정이 진왕에 즉위한 지 20년째 되던 해, 즉 기원전 227년, 연나라 태자단(太子丹)이 형가를 파견하여 암살을 시도했다가 실패로 끝난 일이다. 『전국책』을 비롯하여 『사기』 「자객열전」 및 소설에 가까운 『연단자』(燕丹子) 등에 박진감 넘치게 기록되어 있다. 따라서 역사상 실제 사건을 소재로 제작한 영화는 <영웅>이 아니라 오히려 진가개 감독이 1999년 출품한 <The Assassin>(중문명 : 荊軻刺秦王)이었다.

따라서 <영웅>의 스토리가 비록 허구이긴 하나 역사나 소설로부터 영감을 얻어 제작되었다는 점에서 인문학은 대중문화의 풍부한 원천임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다.<sup>18)</sup>

17) 각주 13을 참고.

18) <영웅>의 등장인물이나 스토리가 비록 허구이긴 하나 일단 특정한 역사를 배경으로 삼았다면 그 시대의 문물만은 정확을 기해야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등장인물 특히 잔검(殘劍)이 소전(小篆)으로 붓글씨를 쓰는 점은 문제가 있다. 소전은 진시황제가 천하를 통일한 이후의 일이므로 시대적 배경과 맞지 않기 때문이다. [감독 장예모가 일부로 그렇게 했다는 기사가 있음. 기사 내용은 아래 인용문을 참고] 한편 진나라 군사들이 온통 흑색으로 통일했다. 진시황제가 중국을 통일하고 몇 가지 상징적인 조치를 취했는데 그 하나가 바로 의복 깃발 등등의 색을 정할 때 흑색을 가장 귀하게 책정했다. 왜 흑색을 택했을까? 종시오덕설(終始五德說)의 영향이다. 주나라는 '불'의 덕을 받았다고 믿었으므로 불을 끄고 새롭게 진제국이 들어서려면 당연히 '물'이 필요하다. 따라서 황하도 덕수(德水)로 고쳐 부를 정도였다. 이 '물(水)'은 색으로 말하면 검은 색에 해당한다. 따라서 여러 색 중에 서도 흑색을 가장 존귀하게 여겼던 것이다. 백성들을 검수(黔首)로 바꿔 불렀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검수'의 '검'은 검은 색의 뜻이다. 이 모든 조치는 진시황제가 천하를 통일한 이후의 일이다. [참고] 기사 질문 : 作為趙國人的殘劍為什麼不寫本國的大篆而是要寫當時秦國才有的小篆? 장예모 답변 : 秦統一六國之後, 李斯統一文字才開始推行小篆, 殘劍寫的應該是一個大篆. 當時, 我們請書法家寫了好幾個, 懂歷史的人就告訴我: 秦統一之前的字就是這樣. 我一一看寫的完全不像一個“劍”字, 寫出來的都不認識, 于是我就決定用一個小篆. 這樣, 我們完全是本着為觀眾負責的態度, 便于觀眾欣賞, 因為大篆寫出來的不好認. 選了半天, 選了這個好看的. 這我知道是超前了, 不過應該問題不大, 因為它只是個故事嘛.] [http://joy.online.sh.cn/ joys/gb/content/2002-12/15/content\\_483749.htm](http://joy.online.sh.cn/ joys/gb/content/2002-12/15/content_483749.htm)

#### 4. 자객들의 밑모에 관하여

진왕 영정에게 십 보 이내로 접근하기 위하여 검객들이 일부로 저주거나 자신을 희생하는 그런 행위, 일종의 교육책이라 하겠는데 이런 내용은 아마도 춘추시대 진(晉)나라에서 발생한 조무(趙武)의 극적인 복수기 <수고구고>(蒐孤救孤)에서 힌트를 얻지 않았나 싶다. 특히 <영웅>의 검객들이 모두 조(趙)나라 출신으로 등장하기 때문에 그런 느낌이 더욱 든다.

<수고구고>는 <조씨고아>(趙氏孤兒)라고도 부르며 그 스토리는 『사기』 「조세가」에 자세하게 훗날 다양한 예술작품으로 재창작되었다. 원나라 때 기군상(紀君祥)의 희곡 『조씨고아대복구』(趙氏孤兒大報仇), 명나라 때 서원구(徐元久)의 소설 『팔의기』(八義記), 청나라 때 지방극의 하나인 방자(梆子), 근대에는 서북지역 지방극의 하나인 진강(秦腔) 및 중국 오페라 경극(京劇) 등의 레퍼토리로 각색되어 지금도 중국어권 애호가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수고구고>는 외국 작가들에게도 인기였다. 1735년에는 프랑스로 번역 소개되었고 1781년 독일의 대문호 괴테는 『조씨고아』를 개편하여 『엘페노르』(Elpenor)로 창작했다. 1784년 이탈리아 극작가 메타스타시오(Metastasio, Pietro)는 『조씨고아』를 개편하여 『중국 영웅』으로 창작했으며 프랑스 계몽주의 사상가였던 볼테르는 『조씨고아』를 개편하여 『중국 고아』로 창작하였다. 한편 2003년 7월 25일자 중문 일간지 환구시보(環球時報)에 따르면 그해 7월 22일부터 23일 사이에 미국 뉴욕의 링컨센터 예술제에서 『조씨고아』가 미국판으로 개작되어 무대에 올려지기도 하였다.

1784년 이탈리아 극작가 메타스타시오(Metastasio, Pietro)는 『조씨고아』를 개편하여 『중국 영웅』으로 창작했는데 ‘영웅’이란 용어에 주목했으면 한다. <수고구고>의 스토리는 다소 길기 때문에 각주로 소개하도록 한다.<sup>19)</sup>

19) ‘조씨고아’란 조무(趙武)를 말한다. 조무는 진(晉)나라 장군 조삭(趙朔)의 유복자이다. 조무가 아버지의 원수를 갚고 집안을 부흥시킨 사건은 춘추시대 중엽 진(晉)나라 역사상 대사건의 하나였다. 조씨 가문은 이 사건으로 진나라 6대 가문 중 막강한 실세로 부상하였다. 그로부터 1백여 년 후 조(趙)씨, 한(韓)씨, 위(魏)씨 3대 가문이 진나라를 분할하여 각각 조나라 한나라 위나라로 독립하게 되는데 이때부터 전국시대라 부르며 그 주모자는 조씨 가문이었다. 그러므로 ‘조씨고아’ 사건은 단순히 의리와 복수의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진(晉)나라의 멸망과 분할까지 영향을 미쳤다. ‘조씨고아’가 없었다면 춘추전국 시대

의 역사는 새롭게 쓰여졌을 것이다. / 조씨 가문이 부상하기 시작한 것은 조쇠(趙衰)가 진 문공(晉文公)을 보필하여 춘추시대 5대 강대국으로 패권을 쥐면서부터이다. 조쇠의 아들 조순(趙盾)은 진나라 양공(襄公), 영공(靈公), 성공(成公), 경공(景公) 등 진나라 4명의 왕을 연속 모시며 권문세가로 자리를 굳혔다. / 진영공이 즉위하던 해, 조순은 제(齊)나라 송(宋)나라 위(衛)나라 정(鄭)나라 조(曹)나라 허(許)나라 등의 군주를 소집하여 맹약을 맺을 정도로 위세를 떨쳤다. 경대부의 신분으로 제후국의 군주를 소집한 것은 역사상 최초의 일이다. 조씨 집안의 위세에 놀려 진영공은 일국의 군왕으로서 성인이 되었지만 실권이 없었다. 그러므로 실권자 조순과의 격돌은 불가피한 일이었다. 진영공은 공개적으로 조순을 살해할 힘이 없었으므로 은밀히 자객을 보내거나 측근을 매복시켜 제압하려고 하였지만 번번히 실패했다. 생명의 위협을 느낀 조순 일당은 역공을 취하여 영공을 시해해 버렸다. 조순 일당이 영공을 시해하고 양공의 동생을 옹립했는데 그가 곧 성공이다. / 성공이 죽자 그의 아들 경공이 즉위했다. 경공 시절에 조순이 죽었다. 조순이 죽자 그의 아들 조삭이 뒤를 이었다. 조삭은 성공의 누이를 아내로 맞이하여 왕실과의 관계를 공고히 하려 했다. 그러나 경공은 조삭을 비롯하여 조씨 집안을 멸하고 왕권을 회복하려 하였다. 경공은 조씨 집안을 견제하려고 도안가(屠岸賈)를 특별히 중용하여 사구(司寇)에 임명했다. 사구는 법무부 장관에 해당한다. 도안가는 조씨 집안이 진나라를 좌지우지하는데 불만을 품었던 터라 꼬투리를 잡아 조씨 일파를 제거하려고 하였다. / 진경공이 왕위에 오르지 3년째 되던 해, 기원전 597년의 일이다. 초나라가 정나라를 공격하자, 진경공은 조삭에게 명하여 군대를 이끌고 정나라를 구원하도록 하였다. 도안가는 시기가 도래했다고 판단하고 영공의 시해 사건을 들춰냈다. 도안가는 장군들을 소집하여 선동했다. “조순이 직접 영공을 시해하지는 않았지만 그가 묵인했기 때문에 고종 동생 조천(趙穿)이 시해할 수 있었지요. 결국 조순이 시해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신하로서 군왕을 시해한 자의 아들이 버젓이 살아 조정의 대신으로 군림해서는 국가의 기강을 바로 세울 수 없소이다. 조삭을 죽여야 합니다.” 다른 장군들은 도안가가 이렇게 나서는 것은 경공의 묵인 하에 일을 진행하는 것이라 판단했기 때문에 잠자코 있었다. 그러나 장군 한궐(韓厥)만은 반대했다. “그 사건은 한참 된 일입니다. 그 당시 조순이나 조삭을 죽였다면 모르겠거니와 아무도 문제삼지 않았는데 지금 와서 소급하여 응징한다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못합니다.” 도안가는 한궐의 의견을 묵살하고 장군들을 선동하여 조삭을 죽이려 하였다. 한궐은 급히 조삭에게 사람을 보내 다른 나라로 망명하기를 권했다. 그러나 조삭은 오히려 담담하게 대꾸했다. “장군께서 조씨의 후손을 보호해주신다면 저는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아버지가 죄를 짓고 죽었다면 아들이 빛을 갠야지요. 제가 죽겠습니다.” 한궐이 알겠다고 하자 조삭은 죽음을 무릅쓰고 귀국하였다. / 도안가는 장군들을 이끌고 조삭 뿐 아니라 조씨 일족을 모두 색출하여 살해했다. 조삭의 부인은 경공의 고모였는데 사건이 터지자 궁중으로 피신했다. 그때 마침 조삭의 부인은 임신 중이었다. 조삭 문화의 식객 중에 공손저구(公孫柎臼)란 이가 있었다. 공손저구는 조삭의 친구 정영(程嬰)에게 물었다. “친구가 살해되었는데 왜 살아있는가?” 정영이 대답했다. “친구의 부인이 임신 중이라요. 아들을 낳으면 어떡하든 키워줄 것이요. 딸이라면 그때 가서 죽으려고 기다리고 있소.” 얼마 뒤 조삭의 부인이 출산했는데 아들이었다. / 도안가는 조삭의 부인이 아들을 낳았다는 첩보를 입수하자 후환을 없애기 위하여 궁중을 수색하였다. 조삭의 부인은 갓난아기를 치마 속에 감추며 기도했다. “조씨 집안이 망하려면 울고 그렇지 않으려면 조용히 있다가요.” 병사들이 물려와 방안 구석구석을 뒤지며 야단법석을 쳤지만 갓난아기는 신통하게도 울지 않았다. / 조삭의 아들이 살아났다는 소식을 듣자 정영은 공손저구를 찾아가 상의했다. “한 번 수색해서 못잡았다고 단념할 사람들이 아닌데

불시에 또 수색하면 어쩔 것이요?” 공손저구가 대답했다. “유복자를 키우는 것과 죽는 것은 어느 쪽이 어렵소?” 정영이 대답했다. “죽는 것이 뭐가 어렵겠소, 몰래 유복자를 키우는 것이 어렵지요.” 공손저구가 제안했다. “조삭은 선생을 예우했으므로 선생께서 어려운 일을 맡아주시구료. 제가 쉬운 일을 맡아 먼저 죽겠소이다.” 그리하여 두 사람은 다른 사람의 갓난아이를 구하여 수놓은 포대기에 감싸안고 심산유곡에 숨었다. 정영은 산을 빠져나와 장군들을 찾아가 아뢰었다. “소인에게 천금을 주신다면 조씨고아가 숨어있는 곳을 알려드리리다.” 장군들은 당장 오락하고 정영을 앞세워 심산유곡으로 쳐들어갔다. / 병사들이 들이닥치자 공손저구는 정영을 향하여 독설을 퍼부었다. “버리지 같은 소인 모리배 정영! 조삭이 너한테 그렇게 잘해주었던만 복수를 못할망정 이렇게 배신할 수 있느냐. 천하의 나쁜 놈 정영!” 공손저구는 갓난아이를 부둥켜 안고 울부짖었다. “하늘도 무심하시지. 조씨고아가 무슨 죄라고 이렇게 죽어야 하나. 갓난아이는 살려주시오. 내가 대신 죽겠소이다.” 장군들은 병사들에게 공손저구와 갓난아이를 살해하라고 지시했다. 도안가 일당은 이제 조씨 일족의 씨가 마른 것으로 확신하고 축배를 들었다. 그러나 진짜 조씨고아는 정영이 뒤로 빼돌린 터였다. 정영은 조씨고아를 조무(趙武)라 이름붙였다. 훗날 무력으로 보복하라는 뜻이었다. / 그로부터 어언 15년이 흘렀다. 진경공이 갑자기 병이 들어 점을 치게 되었다. 조씨의 후손이 고난을 당하고 있기에 그 원혼이 심술을 부린다는 점괘가 나왔다. 경공은 한궐을 불러 무슨 뜻인지 물었다. 한궐은 이때다 싶어 아뢰었다. “조씨 집안은 은나라 때부터 대대로 공훈을 세우 명문이었었는데 군왕 대에 이르러 멸족을 당했기에 원혼이 떠돌고 있습니다.” 경공이 다시 물었다. “조씨의 후손이 아직도 남아있는가?” 한궐은 그간의 사정을 아뢰었다. 경공은 한궐과 밀모하여 조씨고아를 궁중으로 불러 숨겨놓았다. / 장군들이 경공에게 병문안을 왔다. 한궐은 조씨고아를 거론하며 장군들을 위협하였다. 장군들은 겁이 나서 경공에게 하소연했다. “그 당시 저희는 도안가의 협박에 못이겨 군왕께 보고도 하지 않고 살육을 저질렀나이다. 도안가만 아니었다면 저희가 어떻게 감히 그러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저희는 조씨를 복권해주십사 청원할 생각이었지요.” 그리하여 경공과 한궐은 조무와 정영을 불러내 장군들에게 두루 인사를 시키고 곧바로 도안가를 공격하여 멸족시켜 버렸다. 조무는 복권되어 조삭의 직위를 계승하였다. / 조무가 스무 살이 되어 성인식을 치루었다. 정영은 주위 대신들에게 두루 작별인사를 올리고 조무를 불러 말했다. “자네의 선친께서 작고할 때 주위 친구들도 모두 순절(殉節)하였다네. 그 당시 나도 죽을 수 있었지만 자네를 키우기 위하여 살아남았지. 이제 자네도 성인이 되었고 복권도 되었으니 내 임무도 끝났어요. 지하로 내려가 자네의 선친과 공손저구에게 보고하겠네.” 조무는 머리를 땅에 짚으며 통곡하였다. “소인은 이 몸을 다하여 선생을 죽는 날까지 모시려 하였는데 저를 버리고 가시겠다니 아니되웁니다.” 정영이 달랐다. “그건 안 될 말일세. 공손저구는 내가 임무를 완성할 것이라 믿고 먼저 죽었다네. 지금도 지하에서 소식을 기다릴 텐데 내가 보고를 하지 않으면 실패한 줄 알고 걱정한다 말일세.” 정영은 미리 준비한 비수로 자결하였다. 조무는 부친상처럼 삼년 동안 상복을 입으며 애통해 하였고 매년 철따라 제사를 올려 그 은공을 기리었다. / 그 뒤 사람들은 정영과 공손저구 그리고 조무 대신에 죽은 갓난아이를 한 곳에 묻고 삼의총(三義塚)이라 불렀다. 세 명의 의사(義士)를 매장한 묘소의 뜻이다. 묘소는 지금의 섬서성 한성시(漢城市) 지천진(芝川鎭)에 있다. 사마천의 고향이 바로 그곳이다. (끝)

## 5. 서예와 검술을 관통하는 장자(莊子)의 사상

검객들이 실제로 칼싸움을 하기 보다는 의념으로 싸운다는 대목에서 이런 코드를 충분히 느낄 수 있다. 잔검이 무명에게 했던 말 중에 이런 구절이 있다. “서예의 요체는 마음에 있다. 검술 역시 마찬가지로 순수한 마음으로 복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리하여 나는 차츰 깨닫게 되었다…….”<sup>20)</sup> 무엇을 깨달았다는 것일까? 감독은 그 해답을 영정이 ‘검’ 자를 뚫어지게 바라보다가 불현 듯 외치는 다음 대사 속에 담아 놓았다. “검술의 최고 경지는 손아귀에도 칼이 없고 마음 속에도 칼이 없는 것이다. 그렇게 되어야만 넓은 마음으로 모든 것을 포용할 수 있다. 그것은 살육을 그치는 것이며 평화를 추구하는 것이다.”<sup>21)</sup>

감독이나 시나리오 작가는 장자의 사상을 제대로 이해하고 서예와 검술의 도리에 적용한 것일까? 고수의 대결은 실전에 앞서 의념으로 싸운다는 것이나 영정의 대사 중에 “검술의 최고 경지는 손아귀에도 칼이 없고 마음 속에도 칼이 없는 것이다. 그렇게 되어야만 넓은 마음으로 모든 것을 포용할 수 있다”까지는 그런대로 장자의 사상을 담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바로 이어지는 “그것은 살육을 그치는 것이며 평화를 추구하는 것이다”라는 대사는 관객을 당혹스럽게 한다. 너무 건너뛰었기 때문이다. 이제 관련된 장자 사상을 인용하며 대사를 분석하기로 한다.

『장자』「전자방」(田子方)편에 이런 내용이 있다.

송원군이 화가를 모집하자 화공들이 운집했다. 화공들은 지시에 따라 예의를 갖추고 한쪽에 서서 붓을 풀고 먹을 갈기 시작했다. 어쩌나 많이 몰려왔는지 밖에 서있는 화공이 절반이나 되었다. 그런데 화공 한 명이 지각했다. 화공은 서둘지 않고 느긋하게 들어와 지시에 따라 예의만 갖추고는 그냥 뒤돌아서 속속로 가버렸다. 송원군이 사람을 보내 동정을 살폈다. 화공은 옷을 벗어던지고 두 다리를 쪽 편채 알몸으로 앉아 있지 않은가. 보고를 받아 송원군이 말했다. “옳거니, 그 친구가 진

20) 영화 대사는 이렇게 되어 있음. “書法之眞諦, 在于意境, 劍法也如此, 講求返樸歸眞之境界, 于是我慢慢領悟了…….” (이하 장자사상과 관련된 설명은 줄져 『장자30구』를 참고)

21) 영화 대사는 이렇게 되어 있다. “劍法的最高境界則是手中無劍, 心中也無劍, 是以大胸懷包容一切, 那便是不殺, 便是和平.”

짜 화가네.”<sup>22)</sup>

이 화가는 언뜻 보면 무척 희한한 인간이다. 다른 화가들은 임금에 부르니까 앞 다투어 자리에 참석하고 또한 열심히 그림을 그리려는 기색이 역력한데 이 화가만은 전혀 다르다. 지각한 것은 둘째 치고 예의범절도 제대로 갖추지 않았다. 대략 체크인만 하고는 숙소로 돌아갔으며 옷을 벗고 두 다리 쪽 편채 그림 따위에는 신경도 안 쓰고 있다.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미치광이나 다름 없지 않겠는가. 그런데 임금은 이 미치광이를 진짜 화가라고 칭찬하고 있다. 어찌 된 일일까? 『장자』의 이야기는 기본적으로 우화인데 우화란 본디 빗대 이야기이므로 무엇을 빗대고 있는지 따져보면 실은 중국 예술정신이 오롯이 담겨있을 뿐 아니라 앞서 거론했던 서예 및 검술까지도 관통하는 코드이다.

중국 예술은 기교보다도 정신을 소중하게 생각한다. 이 말을 오해해서는 안 되는데, 기교는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니라 단계를 따질 때 그러하다는 것이다. 절차탁마를 통하여 출중한 기교를 연마하는데 게을리 해서는 안 되지만, 그 단계에 머물러서는 그저 ‘쟁이’의 기술 수준에 불과하며 절정 고수에 도달하려면 정신적인 측면, 즉 도(道)의 경지까지 이르러야 한다는 뜻이다. 중국의 전통 예술가는 기술 연마도 연마지만 그와 동시에 혹은 그 이전에 인격적인 수양을 먼저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장자』 「양생주」편에는 ‘포정해우’ (庖丁解牛) 이야기가 있는 바, 신기에 가까운 백정의 기술에 탄성을 지르던 문혜군이 대단한 기술이라고 칭찬하자 백정은 정색을 하며 ‘기술’이 아니고 ‘도’의 경지라고 정정해준다.<sup>23)</sup> 백정이 강조한 ‘도’가 진정한 ‘도’라면

22) 宋元君將畫圖，衆史皆至，受揖而立，舐筆和墨，在外者半，有一史後至者，儻儻然不趨，受揖不立，因之舍。公使人視之，則解衣槃礴贏。君曰：“可矣，是真畫者也。”(田子方)

23) “백정이 문혜군에게 소잡는 시범을 보이게 되었다. 손을 대고, 어깨로 기대고, 발로 디딘고, 무릎으로 받치는데 그 동작 하나하나가 예술이었다. 칼날을 움직일 때마다 사사삭 나는 소리는 너무도 리드미컬 했다. 소잡는 모습은 마치 춤을 추는 듯, 들리는 소리는 음악이었다. 문혜군이 놀라서 소리쳤다. ‘헉스, 대단하이, 정말 고난도 기술이야!’ 백정은 칼을 놓으며 아뢰었다. ‘소인이 추구하는 바는 기술이 아니라 도(道)입니다. 소인이 처음 소를 잡을 때 보는 소마다 온전한 소였습죠. 3년을 잡아보니까 모두 해체되어 보이더군요. 지금은 눈으로 소를 보지 않고 정신으로 대합니다. 이목구비의 감각적인 기능을 정지시키자 정신이 활발해지기 시작하더군요. 소인은 그저 소 몸속의 결에 따라 빈틈으로 칼날을 놀리고 사이사이로 길을 내는데 모두 원래 소의 구조 그대로 따를 뿐입니다. 섬세한 힘줄

도축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기타 다른 사물이나 상황에서도 모두 적용될 수 있어야 한다. 처음에는 온전한 소의 모습이었는데 나중에는 소가 날날이 해체되어 보였고 마침내 이목구비의 감각이 정지되고 오로지 정신만이 활발해지며 칼날이 허공을 가르듯 스치면서 흙이 땅바닥에 쏟아지듯 소가 해체되었다고 말했다. 이런 과정과 단계는 서예를 포함한 모든 예술의 창작 과정은 물론이고 검술에서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장자』 「천도」편의 윤편(輪扁) 이야기를 보도록 한다. 윤편은 수레바퀴 제작 전문가이다.

제환공이 책을 읽고 있었다. 윤편이 수레바퀴를 깎고 있다가 연장을 놓고는 제환공에게 다가가 여쭙었다. “지금 무슨 책을 보십니까?” 제환공, “성인의 책이 아니라.” 윤편, “그 성인은 살아계십니까?” 제환공, “아니, 이미 죽었지.” 윤편, “그럼 임금께서 읽고 계신 것은 쓰레기에 불과합니다.” 환공, “과인이 성인의 책을 읽고 있는데 미친한 것이 감히 이러쿵저러쿵 주둥아리를 놀리다니. 말이 되면 살려주고 혀튼 소리면 죽음이다.” 윤편, “제가 하고 있는 작업을 가지고 비유하겠습니다

근육 및 뼈와 살이 영긴 부위도 칼날을 댄 적이 없는데 하물며 엄청 큰 뼈다귀를 칼로 후빌 필요가 있겠습니까. 고수급 백정은 1년에 칼을 한 번 갈습니다. 왜 1년에 한 번 갈까요? 칼로 베기 때문에 칼날이 무더지는 것이지요. 일반 백정은 1달에 한 번 칼을 갈습니다. 왜 1달에 한 번일까요? 칼로 찌기 때문입니다. 소인은 19년째 수천만 마리 소를 잡았지만 칼날은 막 수돌에서 갈아낸 듯 여전히 새것입지요. 소의 관절과 힘줄 근육은 틈새가 있고, 칼날은 너무도 날카로와, 날카로운 칼날로 틈새를 너무도 여유있게 지나갑니다. 그러므로 19년 칼을 놀렸지만 수돌에서 막 꺼낸 칼날 같습니다. 이렇게 되기까지는 소를 볼 때마다 긴장되었고 복잡하게 얽히고 설킨 부위를 접할 때마다 신경이 곤두섰기에 눈길을 떼지 않고 조심스레 칼질하였습니다. 지금은 경지에 올라 마음으로 손길이 가면서 그저 칼날을 살짝 대기만 해도 소 한 마리가 홀러덩 해체되어 흙이 땅바닥에 쏟아지듯 와르르 주저앉습니다. 그런 다음 소인은 칼을 거두고 바로 서서 느긋하게 주위를 둘러보지요. 문혜군이 탄성을 질렀다. ‘대단하이. 백정의 이야기를 듣고나니 양생의 도리를 알겠노라.’”(庖丁爲文惠君解牛，手之所觸，肩之所倚，足之所履，膝之所踣，杙然響然，奏刀騞然，莫不中音。合於桑林之舞，乃中經首之會。文惠君曰：「譔，善哉！技蓋至此乎？」庖丁釋刀對曰：「臣之所好者道也，進乎技矣。始臣之解牛之時，所見無非全牛者，三年之後，未嘗見全牛也。方今之時，臣以神遇而不以目視，官知之和而神欲行。依乎天理，批大郤，導大窾，因其固然，技經肯綮之未嘗微礙，而況大軀乎！良庖歲更刀，割也，族庖月更刀，折也。今臣之刀十九年矣，所解數千牛矣，而刀若新發於硎。彼節者有間，而刀刃者無厚，以無厚入有間，恢恢乎其於遊刃必有所餘地矣。是以十九年而刀刃若新發於硎。雖然，每至於族，吾見其難爲，怵然爲戒，視爲止，行爲遲。動刀甚微，謦然已解，如土委地。提刀而立，爲之四顧，爲之躊躇滿志，善刀而藏之。」文惠君曰：「善哉！吾聞庖丁之言，得養生焉。」)



다. 나무를 깎아 바퀴 축에 맞출 때 너무 수월하게 들어가면 험거워 덜거럭거리고, 너무 꼭 끼면 뻑뻑해서 들어가지 않습니다. 너무 험겁지도 않고 너무 끼지도 않게 하려면 마음 속의 의도가 미묘한 손끝의 감각과 맞아 떨어져야만 합니다. 이 건 말이나 글로 표현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하여 자식에게도 가르쳐 줄 수가 없었고 자식도 제게 배울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아직까지 나이 70이 되도록 이렇게 앉아서 바퀴를 깎아 먹고 있지요. 옛 성인이 전하려는 그 섬세하고도 미묘한 생각은 글이나 말로 표현할 수 없으므로 성인이 죽으면 함께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임금께서 읽고 계신 것은 성인이 남긴 쓰레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sup>24)</sup>

위 이야기의 요점은 얼핏 봐서 글이란 생각을 100% 전달할 수 없다는데 있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이런 뜻이 된다. 기교는 지성으로 몰입하여 각고의 노력 끝에 스스로 터득하는 것인지 누가 옆에서 가르쳐 준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또한 어떤 정해진 법칙에 그대로 따라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란 뜻이다. 이 말은 곧 마음과 손이 완전히 일치해 되었을 때 비로소 가능하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손재주-기교를 연습하기에 앞서 먼저 마음을 다스려 표현하고자 하는 그 대상과 일치시키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뜻이다. 마음을 대상과 일치시키려면 먼저 마음을 비우고 대상을 마음 속에 그대로 집어 넣으면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하려면 우선 잡념을 없애고 마음을 비워둬야 대상이 들어올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맥락에서 『장자』 「달생」(達生) 편의 다음 이야기를 또 읽어보자.

공자가 초나라로 가는 길에 숲을 지나치게 되었다. 곱추 노인 한 분이 마침 매미를 잡고 있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매미를 잡는 것이 아니라 매미를 주어담고 있

24) 桓公讀書於堂上。輪扁斲輪於堂下，釋椎鑿而上，問桓公曰：「敢問，公之所讀者何言也？」公曰：「聖人之言也。」曰：「聖人在乎？」公曰：「已死矣。」曰：「然則君之所讀者，故人之糟粕已夫！」桓公曰：「寡人讀書，輪人安得譏乎！有說則可，無說則死。」輪扁曰：「臣也以臣之事觀之。斲輪，徐則甘而不固，疾則固而不入。不徐不疾，得之於手以應於心，口不能言，有數存焉於其間。臣不能以喻臣之子，臣之子亦不能受之於臣，是以行年七十以老斲輪。古之人與其不可傳也死矣，然則君之所讀者，古人之糟粕已夫！」(天道篇)

었다. 공자가 물었다, “신기하네. 무슨 재주요. 도통한 것인가?” 곱추가 대답했다, “도통한 것이지. 장대 끝에 구슬 두 개를 올려놓고 떨어지지 않게끔 연습하는데 오륙 개월 걸렸다네. 그런 다음 매미를 잡았더니 실수하는 예가 드물었지. 장대 끝에 구슬 세 개를 올려놓고도 떨어지지 않게끔 또 연습했다네. 그러니까 실수하는 예가 더욱 줄어들더군. 구슬 다섯 개를 올려놓고도 떨어지지 않게 되니까 그때는 마치 물건을 줍듯 매미를 주어담게 되더군. 내가 살아가는 것도 이런 식이라네. 내 몸은 단단하고도 육중한 나무 즐기이므로 어깨를 들어 장대를 잡아도 썩은 가지 하나 들어올린 듯 가뻐하지. 넓고 넓은 세상에 삼라만상이 어지럽게 널려있지만 내 마음에는 오로지 매미 하나 밖에 없거든. 잡념이 전혀 없고 세상 그 어떤 대단한 물건이 옆에 있더라도 매미 날개와 바꿀 생각이 없다네. 이런데 줍지 못할 것이 뭐 있겠는가.” 공자가 제자들을 둘러보며 말했다, “마음이 산란하지 않으면 정신이 집중된다는데 여기 곱추 노인장을 두고 하는 말이다.”<sup>25)</sup>

매미를 주어담듯 포획하려면 손재주·기교만 길러서는 안 되고 마음가짐을 어떻게 갖추느냐가 더욱 중요한데 그 관건은 오로지 매미만 생각하는 것이다. 곱추 노인장의 마음에는 매미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고백했지 않은가. 오로지 그 대상만 생각하고 있다는 뜻이다. 예술가가 권력이나 재물 혹은 명예에 탐닉해서는 좋은 작품이 결코 나올 수 없다는 것도 같은 맥락이 아니겠는가. 매미 날개는 매우 얇다. 그렇게 얇고 하찮은 작품일지라도 이 세상 어느 귀한 물건과도 바꿀 의사가 없다는 것은 전심전력으로 대상에 빠져든다는 뜻이다. 그런데 정작 매미를 잡을 때는 잡는다고 하지 않고 그냥 주워담는다고 했다. 주워담는다는 것은 매미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 속에 이미 있기 때문에 굳이 힘쓸 필요 없이 그대로 자기 것이 된다는 뜻이다. 중국어 성어에 흉유 성죽(胸有成竹)이란 용어가 있는 바, 가슴 속에 이미 완성된 대나무 그림이 있다는 것으로 대나무의 이런저런 모습을 하나 하나 재가면서 그려가는 것이 아

25) 仲尼適楚，出於林中，見犍僕者承蠅，猶撥之也。仲尼曰：「子巧乎！有道邪？」曰：「我有道也。五六月累丸二而不墜，則失者錙銖；累三而不墜，則失者十一；累五而不墜，猶撥之也。吾處身也，若厥株拘；吾執臂也，若槁木之枝。雖天地之大，萬物之多，而唯蠅翼之知。吾不反不側，不以萬物易蠅之翼，何爲而不得！」（『莊子』「達生」）

니라 일필휘지로 대나무 그림을 담박에 완성시켜 버린다는 뜻이다. 매미를 주워담는다는 표현도 역시 같은 '홍유성죽' 및 '일필휘지'와 같은 맥락이다.

이제 처음 꺼냈던 그 화가 이야기로 돌아가도록 한다. 그 엽기적인 화가의 행동을 유심히 점검해보면, 임금을 알현하는 자리인데도 그는 지각을 했고 또한 예의범절을 무시하고 숙소로 돌아갔다. 왜 그랬을까? 그의 마음에는 오로지 그림, 그림 이외에는 다른 생각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마음을 비우고 그 빈 마음에 오로지 그림만 담겨 있다는 뜻이다. 그림을 잘 그려서 임금께 상을 받거나 혹은 관직을 얻거나 하겠다는 그런 공리적인 생각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정해진 시각에 도착하지도 않았고 도착해서도 왔다는 시늉만 했던 것이다. 그렇다면 숙소로 들어가서는 왜 벗고 편하게 두 다리까지 쭉 펴고 앉아 있을까? 자기 몸을 의식하면 옷을 입지 않을 수 없겠고, 남의 눈을 의식하면 그런 자세를 취할 리가 없다. 그렇다면 그는 이미 자신의 존재조차도 잊어버린 몰입의 경지라는 것이다. 무아지경(無我之境)이란 바로 이런 경지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무아지경은 장자가 인격수양을 언급하면서 자주 강조했던 것이다. 바로 이런 점 때문에 중국 예술에서는 인격과 작품을 동일선상에 놓고 이야기한다. 심지어 인격의 높고 낮음으로써 작품의 등급을 매기기까지 한다. 인격이 곧 작품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서는 이런 발상이 가능하겠는가?

그렇다면 장자가 이상형으로 여겼던 인격의 특징은 어떠할까? 욕심이 없고 천진난만하며 자연스러운 성품이다. 그것은 곧 지극히 소박(素朴)하고 지극히 담백(淡泊)한 스타일이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중국의 전통 예술이나 고전문학을 평가할 때 평범, 담백, 자연스러움을 보여주는 작품에 가장 높은 점수를 매긴다. 여백이 많은 산수화나 간소한 문인화가 각광을 받는 이유가 그러하며, 도연명의 담백한 시가를 지극히 높게 평가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렇게 본다면 장자의 사상은 중국의 예술과 문학을 이해할 때 간과해서는 안 되는 핵심 키워드이며, 서예와 검술을 논할 때도 손과 마음에 검이 없을 때 가장 높은 경지라는 이야기가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영정의 대사에서 “그것은 살육을 그치는 것이며 평화를 추구하는 것이다”라는 내용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장자』 「산목」(山木) 편의 빈배(虛舟) 이야기를 보도록 한다.

나룻배를 타고 강을 건널 때 빈배가 다가와 박았다면 설령 성질이 급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화를 내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데 나룻배 속에 사람이 있었다면, 비키라고 고향을 지를 것이다. 첫 고향에 반응이 없고 두번째 고향에도 반응이 없다면 세번째 고향에서는 틀림없이 험한 소리로 욕설을 퍼부을 것이다. 처음에는 화를 내지 않다가 지금은 화를 내는 이유는 무엇일까? 아까는 빈배였지만 지금은 사람이 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빈배처럼 마음을 비우고 살아간다면 누가 해칠 수 있겠는가.<sup>26)</sup>

무명이 진왕의 어전에서 암살 대상자 영정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 “일곱 제후국의 계속되는 혼전으로 백성들은 고통을 당하고 있사온대, 오로지 대왕만이 전란을 종식시키고 천하를 통일할 수 있습니다. 잔검은 천하를 위하여 저에게 암살을 포기하도록 종용했습니다. 잔검은 저에게 이렇게 말했지요. 일개인의 고통은 천하만민의 고통과 비교했을 때 고통이라 할 수 없다. 조나라와 진나라의 원한은 천하의 원한과 비교했을 때 원한이라고 할 수 없다.”<sup>27)</sup> 무명의 이 말에 영정은 어떻게 대꾸했는가? 감동적인 표정으로 이렇게 화답했다. “과인을 가장 이해하는 자가 과인이 수배했던 자객일 줄이야. 과인은 외롭게 혼자서 그 많은 비난을 받고 암살도 당했건만 그러나 아무도 과인의 마음을 알아주는 이가 없었다. 진나라 문무백관들마저도 과인을 그저 폭군으로만 봤으니까. 그런데 예상 밖에도 잔검은 과인과 일면식도 없었으나 진정으로 과인을 이해했구나. 과인의 마음과 통했다오.”<sup>28)</sup>

무력으로 평화를 추구한다는 발상이 과연 정당화될 수 있을까 싶지만 이 문제는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한 것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이다. 각 제후국 사

26) 方舟而濟於河，有虛船來觸舟，雖有偏心之人不怒。有一人在其上，則呼張歛之。一呼而不聞，再呼而不聞，於是三呼邪，則必以惡聲隨之。向也不怒而今也怒，向也虛而今也實。人能虛己以遊世，其孰能害之！〈山木篇〉

27) 영화의 대사는 이러하다. “七國連年混戰，百姓受苦，唯有大王才能停止戰亂，一統天下。殘劍希望我，爲了天下，放棄刺殺大王。他跟我說，一個人的痛苦，與天下人比，便不再是痛苦，趙國與秦國的仇恨，放到天下，也不再是仇恨。”

28) 영화 대사는 이러하다. “沒想到最瞭解寡人的竟是寡人通緝的刺客！寡人孤獨一人，忍受多少責難，多少暗算，無人能懂寡人之心，就連秦國的滿朝文武，也視寡人爲暴君，想不到殘劍與寡人素昧平生才真正懂得寡人，與寡人心意相通。”

이에 서로 침략하고 약탈했던 당시 시대적 상황을 고려할 때 조속한 시일 내의 천하통일은 일반 민중들의 입장에서도 복음이 아닐 수 없었다. 게다가 당시 제후국의 실력을 객관적으로 저울질할 때 오로지 영정의 의지 및 진나라의 국력 그리고 책략만이 이 과업을 완수할 수 있었다.<sup>29)</sup> 하루라도 빨리 천하가 통일되어야만 그만큼 백성들이 하루라도 빨리 안정과 평화를 되찾을 수 있다는 관점에서 잔검과 무명 그리고 영정의 생각은 공통점을 찾았던 것이다. 역사적 사실을 놓고 봐도 영정이 천하를 통일하고 진시황제에 즉위한 후에 취한 일련의 조치 중에서 제후국의 왕실을 해체하고 모든 무기를 함양으로 거둬들여 녹인 다음 초대형 종과 12개 동상을 만들어 궁정에 진열했다고 『사기』 「진시황본기」는 기록하고 있다. 중앙집권과 영구 집권을 노린 정책이었지만 한편으로는 더 이상 전쟁이 없는 세상을 추구한 것도 사실이었다.

감독과 시나리오 작가의 생각으로는 영정이 개인적인 부귀영화를 누리고자 통일을 강행한 것이 아니라 전쟁을 종식시키고자 하는 숭고한 마음에서 마음을 비웠다는 것이며, 빈배처럼 마음을 비웠기 때문에 자객의 칼날로부터 살아남았다는 논리가 성립되는 것이다. 요컨대, 영정은 보살의 마음으로 백정의 칼을 들었다는 결론이다.

그렇다면 서예의 도리로부터 검술의 도리까지, 검술의 도리로부터 빈배의 도리까지 주요 등장인물들의 관련 대사에는 장자 사상이 일관성 있게 적용되지 않았는가? 물론 영정이 진시황제에 등극한 이후 취한 일련의 독재 정치와 통일 관념은 따로 논의해야 할 성질의 문제이긴 하다. 이제 그 문제를 논하기로 한다.

## 6. ‘천하통일’은 생존의 문제

‘천하통일’은 예로부터 중국과 중국인에게 지극히 심각한 사안이었다. <영웅>에서 잔검과 무명이 영정의 암살을 포기할 정도로 ‘천하’에 집착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며, 영정 자신이 ‘천하’라는 용어에 감개무량한 표정을 지은 것도 결코 영화 속의 연출로 간과할 수는 없는 문제이다. 그렇다면 중국인들

29) 이 점은 이사(李斯)의 「간축객서」와 가의(賈誼)의 「과진론」을 읽으면 알 수 있다.

은 왜 이토록 ‘천하통일’에 집착하는 것일까? 중국인에게 있어서 ‘천하통일’은 패권의 문제 이전에 실은 생존의 문제였기 때문이다.

〈영웅〉의 마지막 자막을 다시 인용해본다.

紀元前221年, 秦王統一中國後, 結束戰爭, 修建長城, 護國護民, 成爲中國歷史上第一個皇帝, 史稱秦始皇. (기원전 221년, 진왕 영정은 중국을 통일하여 전쟁을 종식시키고 만리장성을 축조하여 국가와 백성을 보호하면서 중국 역사상 최초의 황제가 되었는데 바 그가 곧 진시황제이다.)

중국을 통일하여 전쟁을 종식시켰다는 점, 만리장성을 축조하여 국가와 백성을 보호했다는 점, 이 두 가지는 폭군으로 지탄받아온 진시황제의 이미지와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sup>30)</sup> 그러나 진시황제의 폭정과 천하통일은 별개로 생각해야 할 문제이다. 영토의 통일, 도량형의 통일, 화폐의 통일, 문자의 통일만으로도 족히 ‘대단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물론 진시황제 이전에도 천하통일의 관념은 차츰 형성되고 있었다. 『시경』 「소아」 「북산」편에 “하늘 아래 천자의 영토가 아닌 곳이 없고 바다 안에 천자의 백성이 아닌 사람이 없다”<sup>31)</sup>는 내

30) 우리가 갖고 있는 진시황제의 이미지는 어떻게 형성되었을까? 사마천의 『사기』 「진시황본기」와 「여불위열전」이 결정적인 요인이다. 「여불위열전」에는 진시황제의 출생 배경이 극히 애매하게 기록되어 있으며 「진시황본기」에서는 교만과 과시욕에 가득차고 아울러 포악스럽고 미신에 탐닉한 모습으로 점철되어 있기 때문이다. 근엄한 사료 감별과 정확한 기록으로 정평이 있는 사마천마저 왜 진시황제를 이렇게 기록했을까? 전국시대 말기 진나라의 공세에 무너졌던 여섯 제후국 사람들은 진제국과 진시황제를 곱게 볼 리가 없었다. 일종의 보복심리라고 봐도 무방하다. 따라서 이런저런 안 좋은 소문을 퍼뜨렸을 가능성이 많으며 진시황제의 출생 비밀 역시 그런 소문 중의 하나였을 것이다. 그렇다면 사마천은 왜 이런 유언비어 성격의 스토리를 채용했을까? 한나라 때 사람들은 진제국의 급속한 붕괴로부터 귀감을 삼으려는 분위기가 무척 강했다. 한나라 초기 가의(賈誼)의 「과진론」은 그 방면의 대표작이 아니겠는가. 사마천 역시 왕조의 흥망성쇠를 통하여 치국의 방략을 제시하려던 의도가 있었으므로 진제국의 실정 및 진시황제의 교만과 과시욕 등을 생각할 때 출생 비밀과 관련된 자료 중에 여불위의 사생아 논조를 채택하지 않았을까 짐작된다. 출신성분이 혼란스러운 진시황제는 성격적으로 괴팍스러우며 과격하다는 등식이 자연스럽게 성립되지 않겠는가. 「진시황본기」에는 진시황제의 인상착의마저도 요상하게 묘사되어 있는 점이 이를 반증한다. 사마천 역시 한나라 사람이었던 것이다. (이상은 풀지 『사기본기』 184~187면 참고)

31) 『詩經』 「小雅」 「北山」: “普天之下, 莫非王土; 率土之濱, 莫非王臣……”

용부터가 그러하다.<sup>32)</sup> 그러나 후세 중국인들이 항상 염두에 두었던 통일의 관념을 최초로 구체화시킨 인물은 진시황제이다. 진시황제가 영명하여 천하를 통일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아니었다.

중국 문화는 어느 한곳에서 발원했다고 말하기 힘들다. 그것은 각지에서 고르게 출토되는 각종 유물들을 토대로 판단하면, 비단 황하 유역 뿐아니라 양자강 유역에도 기타 지역에도 초기 인류가 기거했던 증거를 충분히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각지에 설사 초기 인류가 집단 거주했다 하더라도 비교적 규모를 갖춘 부락국가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집단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이 제공되어야만 한다. 그곳이 바로 현재의 서안(西安) 일대이다. 이 서안 일대는 중국 역대로 11개 왕조가 도읍지를 정한 곳이다. 서안 일대에 도읍지를 정한 것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 그것은 이 일대가 황토 지역이기 때문이다. 지금도 중국의 서안을 가보면 노란 색에 약간 검은 기운이 감도는 누런 색의 황토가 도처에 보인다. 이런 황토는 저쪽 서북방 황토 고원의 노란 먼지 알갱이들이 계절풍을 타고 고비 사막을 건너 수천만년에 걸쳐 이 일대에 쌓인 것이다. 이 황토 지대는 황하 유역의 중류 지역을 중심으로 사방으로 퍼져있다. 이 황토 지역은 토지가 무르기 때문에 경작에 용이하다. 정착하여 생활하기 좋은 터전이 되었던 것이다. 바로 이런 토양 덕분에 서안을 중심으로 역대 11개 왕조가 도읍지를 정했던 것이다.

그런데 이 황토 지역이 비록 농사에 적합한 토양이긴 하지만, 그러나 황토 지역을 약 500여 킬로 가로지르는 황하는 설령 관개에 필요한 농업용수를 공급하여 주기도 했다지만 그러나 약한 황토 지층 때문에 장마철에 접어들면 엄

32) 중국인들은 그들의 역사를 보통 5천년 역사라고 말한다. 그건 역사적 기록, 즉 사마천의 『사기』에 근거하여 하문주(夏殷周)로부터 역사를 치기 때문이다. 사실상 은대의 역사적 실체가 갑골문을 통해 이미 증명되었고, 하대의 역사도 신석기 용산(龍山) 문화 등을 통해 그 일부가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으므로 약 5천년의 역사라 해서 그리 과장된 것은 아니다. 문제는 중국 5천년 역사를 전체적으로 조감할 때, 중간의 혼란 시기가 상당히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중국인들의 생각이나 위정자들의 관념에는 항상 통일국가를 정상으로 보고, 소규모 국가의 난립 현상을 비정상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이런 관념은 춘추전국 시대는 물론이고 다양한 이민족이 독립 세력으로 난립했던 위진남북조 시대에도 그러하였다. 동진 16국 시대의 전조(前趙) 왕조의 창립자는 흉노족 출신의 유효(劉曜)였는데 그는 자신을 황제(黃帝)의 후예라고 주장했을 정도이다. 황제(黃帝)는 거의 전설적인 인물이지만 『사기』 「오제본기」에서는 이미 천하를 통일한 군주로 기록하고 있다.

청난 양의 황토 토사를 휩쓸고 내려간다. 보통 물에 먼지의 함유량이 5%만 되도 더러워서 마시지 못한다. 그런데 이 황하는 평상시의 황토 알갱이의 함유량이 30-40%에 달하며 홍수가 났을 경우에는 먼지 함유량이 최고 63%까지 기록한 적도 있었다. 즉, 음용수로 절대 불가능한 것은 둘째치고, 이 흙탕물이 황해로 흘러가는 과정에서 황하의 바닥에 침전되는 황토로 말미암아 강바닥이 계속 높아졌던 것이다. 이게 계속되면 황하가 범람하는 일이 자주 발생하게 된다. 20세기 초까지 공식적인 기록에 의하면 그간 1621차례 황하가 범람했다.

춘추시대로 접어들면서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농업 기술이 현저하게 발달하게 되었다. 이러한 사회경제적 배경하에서 군소 제후국 사이에 비록 신사적인 전쟁이 불문을처럼 지켜졌던 춘추시대라 하더라도 각 군소 제후국들이 황하 연안에 독자적으로 제방을 쌓는 행위는 직접적으로 인접 국가들의 안전을 위협하게 되었다. 일부 제후국은 간혹 인접 국가를 궁지로 몰아넣기 위하여 악의적으로 황하의 제방을 높이 쌓기도 하였다. 기원전 651년 제환공(齊桓公)이 규구(葵丘)에서 제후들을 소집하였을 때 상호간에 맹세한 연합 성명의 한 구절은 이러하다: “황하의 물줄기를 인위적으로 조작하지 말자.” 말하자면 황하의 범람을 이용하여 상대방 국가를 침몰시키는 그런 작전을 상호간에 절대 사용하지 말자는 것이다. 얼마나 황하의 위협이 심했으면 이러한 연합 성명이 발표되었겠는가. 전국시대로 접어들면 제후들 사이에 알력과 시기와 투쟁이 치열해졌기 때문에 황하 처리 문제는 더욱 심각해졌다. 기원전 332년 조(趙)나라가 제(齊) 위(魏) 연합군과 전쟁을 치루게 되었는데 황하의 제방을 붕괴시켜 상대방을 수몰시킨 적이 있었다. 또한 『맹자』를 보면 치수 문제를 언급한 곳이 무려 11차례에 이른다. 맹자 스스로도 백圭(白圭)에게 “우(禹) 임금은 바다를 골짜기로 삼아 황하를 다스렸는데 지금 그대는 인접 국가를 골짜기로 삼아…… 그대는 너무 하고 있다”고 성토했다.<sup>33)</sup> 이렇게 본다면 황하의 물줄기를 관리하는 일 하나만으로도 중국이란 땅덩어리는 군소 국

33) 『孟子』「告子章句下」: “白圭曰, 丹之治水也愈於禹. 孟子曰, “子過矣. 禹之治水, 水之道也, 是故禹以四海爲壑. 今吾子以鄰國爲壑. 水逆行謂之洚水——洪水者, 洪水也——仁人之所惡也. 吾子過矣.”



가의 분열된 힘으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고, 오로지 통일된 강력한 제국이 등장하여 중앙집권의 효율적 동원력을 구사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이다. 진시황제가 이런 사정을 모를 리 없었다. 그러므로 그가 중국을 통일한 이후 명산을 찾아다니며 자신의 공적을 기록하며 빠짐없이 들어간 구절이 바로 ‘황하의 물줄기를 원활하게 뚫었다…’는 내용이다. 이 모든 것이 황하 문제가 중국의 통일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는 점을 증명한다.

한편 계절풍과 농업의 관계 역시 중국이 천하통일을 지향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만들었다. 중국 농업지대의 강우량은 그 80% 이상이 여름 3개월에 집중되어 있다. 계절풍은 필리핀 해역에서 서북방으로 불어오는데 티벳 지역에서 형성된 회오리 바람이 계절풍을 하늘 높이 들어올려 고온다습한 공기가 응결되어 비가 내리는 것이다. 그러므로 비가 내리느냐 마느냐는 전적으로 이 두 종류의 기류가 적시에 만나느냐 만나지 못하느냐에 달려있다. 만약 두 기류가 어느 한 곳에서 계속 만나게 되면 그 지역은 홍수를 맞게 된다. 그 반대라면 가뭄이 들게 된다. 『사기』 「화식열전」에 “6년마다 풍년이 들고, 6년마다 가뭄이 들며, 12년마다 기아가 휩쓴다”고 했던 것이 바로 이점을 설명하고 있으며 이와 동시에 초기 중국 농업의 어려웠던 점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요선우(姚善友)가 각종 자료를 토대로 집계한 바에 따르면 20C 초엽까지 중국이 한재(旱災)를 겪은 적이 1392번, 수재(水災)를 겪은 적이 1621번이었다는 기록이 있을 정도이며 물론 각종 병충해를 비롯하여 공자의 『춘추』에 메뚜기가 하늘을 뒤덮었다는 기록도 많이 보인다.

이처럼 각종 자연 재해에 직면했을 때 인접 국가가 도와주지 않는 것을 일컬어 ‘조적(阻糴)’이라 하였는데, 양국간에 전쟁이 발생하는 원인의 하나가 될 정도였다. 물론 각 제후국간에 혼인문제라든가 개인적인 원한이라든가 혹은 영토 확장 때문에 전쟁을 하기도 했으나 기아 문제로 인한 전쟁은 참여하는 백성들 입장에서든 이관사관이므로 필사의 심정으로 중군하여 참혹한 전쟁이 되곤 했다. 위에서 언급한 규구(葵丘)에서의 연합 성명에서 “황하의 물줄기를 인위적으로 조작하지 말자”와 함께 “식량의 지원을 방해하지 말자”는 내용도 있다는 점은 바로 이러한 맥락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좌전』의 전쟁 기록 중에 식량 문제로 야기된 비교적 유명한 이야기가 있다. 기원전 720

년 정(鄭)나라는 온(溫)나라의 보리와 주(周)나라 쌀을 약탈해 갔다. 이로 인해 전쟁이 발발했다. 또한 기원전 647년 진(晉)나라에 가뭄이 극심해 식량난에 허덕였다. 이때 진(秦)나라가 양식을 지원해 주었다. 그런데 이듬해 진(秦)나라가 자연재해로 인해 식량난을 맞았는데 진(晉)나라는 은혜를 생각하지도 않고 다른 나라에서 제공되는 식량 지원마저도 방해하는 공작을 벌였다. 이로 인해 두 나라는 전쟁을 벌이게 된다. 이 사건을 기록한 『좌전』의 작자와 『사기』의 사마천도 “자연적 재앙은 들고 도는 것이어서 국가마다 당하는 법이거늘……” 이렇게 말하며 간접적으로 진(晉)나라를 비난했다. 이 전쟁에서 진(秦)나라가 승리하게 되고 진(晉)나라 제후는 포로가 된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이듬해 또 진(晉)나라에 기아가 들었다. 진(秦)나라 제후는 아량을 베풀어 식량 지원을 해주었는데 그때 했던 유명한 말이 이렇하다. “나는 진(晉)나라 제후가 밋지만 그러나 그 백성들은 무슨 죄가 있으랴.”<sup>34)</sup> 『좌전』과 『사기』 등에 기록된 춘추전국 시대의 수많은 전쟁은 그 원인이 확실하지 않은 것도 많은데 이상에서 언급했던 자연 재해를 염두에 둔다면 식량 문제로 인한 쟁단(爭端)도 상당수 차지했을 것이다.

춘추시대 이전에는 규정상 각 제후국들은 자기 맘대로 성을 쌓거나 뚝을 쌓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다. 그러나 전국시대로 접어들며 상호간의 쟁단이 확대되면서 각 제후국들은 중앙 정부-말하자면 주(周)왕실 천자의 사전 허락을 받지 않고 자의적으로 성을 쌓거나 뚝을 쌓았다. 이렇게 되자 그러한 성(城)과 제방(堤防)으로 인해 직접적으로 생존의 위협을 받았던 인접 제후국들은 당하기 않기 위해 선제 공격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결국 상호간에 의심이 깊어지면서 그로 인해 자연의 재해에 대항할 역량도 분산되었다. 따라서 수재나 한재가 일단 닥치면 각 제후국은 속수무책으로 당했으며 급기야 자식을 바꿔 먹는다거나 인골을 장작으로 태웠다는 역사 기록이 그대로 연출되는 것이다. 이러한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백성 뿐만 아니라 위정자 입장에서도 통일된 대제국의 역량을 절박하게 갈구하게 되었다. 중앙집권의 강력한 대

34) 『史記』「秦本紀」: (秦穆公)十二年, 齊管仲·陽朋死. 晉旱, 來請粟. 丕豹說繆公勿與, 因其饑而伐之. 繆公問公孫支, 支曰: “穢穰更事耳, 不可不與.” 問百里奚, 奚曰: “夷吾得罪於君, 其百姓何罪?” 於是用百里奚·公孫支言, 卒與之粟. 以船漕車轉, 自雍相望至絳.

제국의 역량이 있어야만 엄청난 자연재해로부터 백성을 보호할 수 있었던 것이다. 전국시대 양혜왕(梁惠王)은 맹자에게 다음과 같이 말한 적이 있다. “황하 서쪽에 가뭄이 들면 백성들을 황하 동쪽으로 이주시키면서 양식을 가뭄 지역으로 수송했다. 황하 동쪽에 가뭄이 들어도 역시 마찬가지로 대처했다.” 양혜왕이 맹자에게 이런 이야기를 한 이유는 자기가 이렇게 백성을 챙기고 있는데 왜 이웃나라 백성들이 자기 나라로 오지 않는냐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맹자는 그 특유의 독설-오십보백보(五十步百步)론으로 반박했지만 그러나 역사의 큰 흐름으로 보았을 때 양혜왕의 푸념은 사실상 일리가 있는 항변이었던 것이다.<sup>35)</sup> 전쟁이든 수재나 한발의 구조 활동이든 대규모 동원이 아니면 살아 남지 못할 전국시대로 접어들면서 군소 국가들은 강대국의 압박에 밀려 하나 둘씩 멸망하기 시작했고 중국의 판도는 통일을 향해 달려가게 되었다. 진(秦) 나라가 그 당시 나머지 여섯 제후국을 차례로 멸하고 중국을 통일하던 시기에 “매뚜기떼가 전중국을 뒤덮었다”(기원전 243년), “전중국에 큰 가뭄이 들었다”(기원전 235년), “전중국에 기근이 덮쳤다”(기원전 230년, 기원전 228년) 이런 기록이 『사기』에 계속 나타난다. 그러므로 진시황제가 전중국을 통일한 자신의 공적을 거론하며 “각 제후국들의 성곽을 허물었다”라든가 “요새의 장애물을 없앴다”고 한 것은 전중국을 통해 각지의 장애물을 제거하여 식량이 자유롭게 유통되도록 만들었다는 뜻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자신은 “백성들을 기아에서 구출하여 천하를 안정시키는” 그러한 위업을 달성했다는 뜻이다.<sup>36)</sup> 그러므로 『맹자』에 술하게 보이는 전국시대의 참상, 가령 “길거리에는 굶어죽은 시체가 뒤굴고 있으며……” “흉년이 들어 늙은이나 어린이는 골짜기에 버려졌고 젊은이들은 먹거리를 찾아 사방으로 흩어졌다”<sup>37)</sup>는 이러한 기록을 염두에 두고 또 한편 전국시대의 참혹한 전쟁을 떠올려 본다면 진시황제의 자화

35) 『孟子』 「梁惠王章句上」: “梁惠王曰, 寡人之於國也, 盡心焉耳矣. 河內凶, 則移其民於河東, 移其粟於河內, 河東凶亦然. 察鄰國之政, 無如寡人之用心者. 鄰國之民不加少, 寡人之民不加多, 何也? 孟子對曰, 王好戰, 請以罍餼. 填然鼓之, 兵刃既接, 棄甲曳兵而走. 或百步而後止, 或五十步而後止, 以五十步笑百步, 則何如? ”不可, 直不百步耳, 是亦走也. 曰, 王如知此, 則無望民之多於鄰國也.”

36) 『사기』 「진시황본기」 참고.

37) 『孟子』 「梁惠王章句下」: “孟子對曰, 凶年饑歲, 君之民老弱轉乎溝壑, 壯者散而之四方者, 幾千人矣, 而君之倉廩實, 府庫充, 有司莫以告, 是上慢而殘下也.”

자찬이 결코 허무맹랑한 과장이 아님을 알 수 있게 된다.<sup>38)</sup>

요컨대, 중국인에게 있어서 '천하통일'은 패권에 앞서 생존의 문제였다. 대규모 동원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연적으로 중앙집권적 대제국의 출현을 요구했으며, 그런 요구는 비단 위정자들 뿐아니라 일반 백성들의 요구이기도 했다. 그렇다면 <영웅>에서 잔검과 무명이 강조했던 '천하'와 영정이 되뇌이던 '천하'는 일치점을 찾지 않겠는가? 역사의 배후에 담긴 이러한 맥락을 이해한다면 <영웅>의 스토리가 우리에게는 퇴행적인 이데올로기일지언정 그들 중국인에게는 극히 현실적인 생존의 문제라는 점을 납득할 수 있을 것이다.

### III. 결론

장예모 감독의 <영웅>은 외국인이 비교적 이해하기 힘든 중국 문화, 특히 검술과 서예에 입힌 예술정신을 비교적 섬세하게 담았으며 전통적인 의리 관념을 녹여넣어 스토리를 진행시켰다. 그러나 그보다는 통일 이데올로기가 우리의 관심을 더욱 자극하였다. 본문은 주로 중국문화의 관점에서 외국인이 이해하기 쉬운 <영웅>의 몇 장면을 집중적으로 분석하면서 중국의 역사 및 사상 그리고 예술이 대중문화의 꽃이라 할 영화에 어떻게 투영 내지는 차용되었는지 살펴보고 아울러 정치사회적 속내까지도 추론해보았다. 지금까지 분석한 내용을 정리하면서 <영웅>을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스러운지 결론을 내리기로 한다.

장예모 감독은 외부의 추측과는 달리 <와호장룡>과는 무관하게 진작부터 <영웅>의 시나리오 및 제작을 구상하였다. 장예모는 중국 현대 영화사에서 제 5세대 감독으로 분류되지만 자유로운 창작 환경을 찾아 외국으로 진출하지 않고 국내에 남아 활동했기 때문에 작품의 예술성과 상업성 사이에서 방황했으며 중국 지도부의 이데올로기를 전혀 외면할 수는 없었다. 낙차가 큰 작품이 교대로 발표되는 현실에서 이런 맥락을 충분히 감지할 수 있으며 특히 <영

38) 이상은 黃仁宇의 『赫遜河畔談中國歷史』 및 『中國大歷史』 그리고 줄서 『중국, 이것이 중국이다』의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함.

웅) 속에 잠복된 정치사회적 함의가 간단하지 않기 때문이다.

<영웅>의 줄거리는 영정(훗날 진시황제)의 암살을 둘러싼 자객들의 밀모를 주선율로 삼았는데 세 가지 서로 다른 스토리로 꾸민 것은 일본 영화 <나생문>(羅生門: 라쇼몽)에서 힌트를 얻은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중국 특유의 의리 관념이 스며들었는데 그 소스는 춘추시대 중원의 강대국 진(晉)나라에서 발생한 조무(趙武)의 극적인 복수기 <수고구고>(蒐孤救孤)에서 취하였다. <수고구고>를 흔히 <조씨고아>라고도 하는데 1784년 이탈리아 극작가 메타스타시오(Metastasio, Pietro)는 <조씨고아>를 개편하여 <중국 영웅>으로 창작했는데, '영웅'이란 용어가 삽입되었다는 점이 200여 년 후의 장애모 <영웅>과 호응을 이루는 듯 하다.

<영웅>에 등장하는 검객들이 실제로 칼싸움을 하기보다는 의념을 싸운다는 장면이나 서예를 통해 검법을 연마한다는 내용 등은 모두 중국의 춘추전국 시대의 도가 사상 중에서도 특히 장자(莊子)의 예술정신을 적용한 것이다. 심지어 영정이 검(劍)이란 글자를 응시하다가 느닷없이 내뱉었던 '마음 비우기'도 역시 『장자』 「산목」 편의 빈배(虛舟) 이야기를 차용한 것이었다.

한편 '천하통일'의 관념은 예로부터 중국과 중국인에게는 매우 심각한 '생존'의 문제였다. 대규모 동원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연적으로 중앙 집권적 대제국의 출현을 요구했으며, 그런 요구는 비단 위정자들 뿐아니라 일반 백성들의 요구이기도 했다. 따라서 <영웅>에서 잔검과 무명이 영정의 암살을 포기할 정도로 '천하'에 집착한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니며, 영정 자신이 '천하'라는 용어에 감개무량한 표정을 지은 것도 영화 속의 연출로 간과해서는 배후에 담긴 역사적 의미를 결코 파악하기 힘들다. 과거의 중국과 중국인에게 '천하통일'의 관념이 그렇게 중요했다면 지금도 그러할까? 그러하다고 말할 수 있다.

과거의 중국이 '천하통일'을 지향한 것은 '생존'의 문제였으므로 평화 공존의 차원에서 우리가 이해 못할 바도 아니다. 그러나 농업기술의 발달로 곡물 생산이 증가하여 현재 굶주리는 중국인이 거의 없고 또한 과학기술을 활용하여 자연재해로부터 상당히 자유로워진 중화인민공화국이 여전히 '국토의 완전한 통일'을 주장하는 저의는 무엇일까? 결론은 여전히 '생존'의 문제가

다. 특히 한국의 고구려사를 중국의 변방 역사로 편입시키려는 중국의 의도적인 행보는 '생존'을 위하여 앞으로는 선제 공격도 불사하겠다는 신호로 비취진다. 현재 중국은 약 5천 킬로미터의 국경선에 소수민족이 동서남북 변경에 포진해 있다. 동북방에는 조선족, 북방에는 몽고족, 서북방에는 위구르족, 서방에는 티벳족, 서남방에는 30~40개에 달하는 소수민족, 남방에는 장족 등이 중원의 한족을 에워싸고 있는 형국이다. 이들 소수민족들은 전체 인구의 8%에 불과하지만 그러나 전체 중국 영토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어느 한 소수민족이 동요하면 다른 소수민족으로 연쇄반응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고 최악의 경우에는 영토가 조각날 수도 있기 때문에 중국정부 입장에서 소수민족 문제에 극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다. 티벳의 정신적 지도자 달라이라마를 국제적으로 고립시키려는 외교 동작은 물론이고 미국의 대테러 전술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이유도 실은 서북방 신강(新疆) 지역의 회교도들이 분리 독립을 거세게 요구할까 겁나기 때문이다. 그런데 동북3성의 조선족들은 티벳이나 신강보다도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북한과 인접한 것은 물론이고 훗날 한국이 통일되면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국이 정부 주도하에 고구려사를 왜곡하는 이유는 결코 학술적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철저히 정치외교적인 문제이자 내부 결속용이라고 볼 수 있다. 현재 중국이 공언하는 '천하통일'은 물론 대만과의 통일이다. 본토주의가 팽배한 대만, 최근 들어 독립 움직임이 더욱 강하게 대두되고 있다. 게다가 대만 카드를 공히 흔드는 미국의 공화 민주 양당의 패권주의<sup>39)</sup>에 대응해야만 하는 중국 정부로서는 내부적으로 티벳과 신강의 독립 움직임, 개혁개방 이후 심화되는 빈부격차와 그로 인한 심각한 지역 갈등, 정부의 지배 이데올로기가 예전처럼 먹혀들지 않는 상황, 이러한 일련의 사태가 중국의 지속적인 안정과 발전에 크나큰 장애 요인이 될 수도 있을 상황이다.

39) 1949년 이후 미국의 공화당과 민주당은 내정으로부터 외교까지 대부분의 문제에 있어서 선명한 입장 차이가 존재하지만 그러나 유독 중국과 대만 문제에 있어서만은 목계를 가지고 있다. 그것은 중국과 대만이 분열된 상태를 유지하는 것으로 영원히 그렇게 유지되길 바란다는 점이다. 이 정책을 흔히 '대만 카드'라 하는데 중국에게는 무척 불편한 아킬레스 건이다. 이 점에 관해서는 홍콩의 중문 주간지 <아주주간>의 최근호에 자세한 분석기사가 있다. (2004년 9월 26일자 참고)

그런데 그간 이리저리 피해나가던 장예모가 <영웅>을 통하여 '천하통일'의 관념을 중국인들에게 다시금 각인시켜주었다. 중국 정부가 기뻐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영웅>이 비록 중국문화를 절묘하게 가미시키고 서구인의 입맛에도 맞도록 상업성을 띤 무협영화의 모습으로 세상에 나왔지만 그러나 인민대회당에서 시사회가 열린 것은 결코 우연한 사건이 아니었다.

영화를 포함한 대중문화는 해당국의 역사 및 사상 그리고 전통예술이 음으로 양으로 반영되거나 적용된다는 점을 우리는 장예모의 <영웅>을 통해 여실히 확인할 수 있었다. 그와 동시에 제작 환경이나 감독의 미묘한 태도 변화에 따라 간혹 정부의 지배 이데올로기가 교묘하게 침투하기도 한다는 점을 <영웅>을 통하여 또한 확인할 수 있었다.

<영웅>은 2003년 골든 글로브 시상식 및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외국어 영화상 후보작에 올랐고 아울러 베를린 영화제에서 알프레드 바우어상을 수상한 바 있다.

## 참고문헌

『莊子』 『史記』 『孟子』 通行本.

黃仁宇 著, 『赫遜河畔談中國歷史』, 臺灣 時報出版社 1989

黃仁宇 著, 『中國大歷史』, 香港 三聯書店 2001

韓煒/陳曉雲 著, 『新中國電影史話』, 中國 浙江大學出版社, 2003.03

梁良 著, 『中國電影我見我思』, 臺灣 茂林出版社, 1998.08

焦雄屏 著, 『新亞洲電影面面觀』, 臺灣 遠流出版社, 1991.12

焦雄屏 著, 『風雲際會』, 臺灣 遠流出版社, 1998.01

졸저, 『中國, 이것이 중국이다』, 아이필드, 2002.05

졸저, 『장자30구』, 아이필드, 2003.12

졸저, 『사기본기』, 사회평론, 2004.07



**【Abstract】**

## Analysis of the Movie “Hero” Directed by Zhang Yimou Based on the Chinese Culture

Lee, In-Ho

The movie “Hero” directed by Zhang Yimou is a little hard to understand for most of the foreigners. The reason why is that the story is based on Chinese culture somewhat delicately, especially artistic mind of fencing and calligraphy, containing traditional morality. But, it is more focus on the ideological unity than the others. Mainly, this article analyzes several scenes of “Hero”, can be misunderstood by foreigners from Chinese cultural point of view. It also finds out how Chinese history, thought and art are reflected and adopted to the movie. Moreover, it reasons about the implicit meanings of politics and society. We can make sure that massculture including movies is reflected or applied to the history, thought and traditional art of countries. At the same time, depending on the producing environment and director’s change of attitude with delicate, we can realize through “Hero” that it penetrates government’s dominate ideology ingeniously.

**Key Words** : Hero, Zhang Yimou, Qinshihuang(First Emperor), Chinese Culture, Ideology.